

중국 직물 모란무늬의 표현방법 및 구성형태에 관한 연구

교 단* · 이 은 진⁺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동신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Expression Methods and Compositions of Peony Patterns in Chinese Textiles

Dan Qiao* · Eun-Jin Lee⁺

Doctor's Course, Dept. of Clothing, Chung-a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Dept. of Costume Design, Dongshin University⁺

(투고일: 2009. 10. 12, 심사(수정)일: 2009. 11. 2, 게재확정일: 2009. 11. 16)

ABSTRACT

In this study, the subjects are the expression methods and compositions of peony patterns in Chinese textiles. This study represents the peony patterns which are from Ta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the research subjects are the peony patterns in fabric, except the peony patterns which are expressed by gold foil, embroidery and kesi.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72 pieces of peony patterns. We sketched the configuration details of peony patterns through the Illustrator program. Analyze and classify the configuration accurately. Based on the 72 pieces of peony patterns, expression methods and compositions of the peony pattern are as following. Firstly, we classified peony patterns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expression methods, as realistic shape, pattern shape and abstract shape. Among these 72 fabric relics, there most of realistic shape 42 pieces(58.3%), pattern shape 25 pieces(34.7%), and abstract shape 5 pieces(7.0%). Secondly, in the realistic shape peony, the most of pattern has petal accumulate as grape-shaped. This type is found in almost every Dynasty and was used regularly in the eras of Song and Ming Dynasty. In the era of Ming Dynasty, by using petals like the curly mushroom, *Yeongji*(靈芝), the pattern of symbolizing longevity was habitually used. The U-shaped flower pattern (type E) and the pattern of emphasizing the veins of petals are found only in the remains of the era of Qing Dynasty. Thirdly, in the pattern shaped peony, the most of pattern has some petals which are separated(type C). Fourthly, we classified peony patterns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compositions, as individual branch form, floral branch form, cluster branch form and floral nest form. Among these 72 fabric relics, there most of individual branch form 33 pieces(45.8%), floral branch form 18 pieces(25.0%), cluster branch form 13 pieces(18.1%), floral nest form 8 pieces(11.1%).

Key words: peony pattern(모란무늬), Chinese peony pattern(중국 모란무늬),
Chinese flower pattern(중국 꽃무늬), Chinese textile pattern(중국 직물무늬),
Chinese traditional pattern(중국 전통무늬)

I. 서론

모란[牡丹]은 화왕(花王) 또는 백량금(百兩金)¹⁾, 부귀화(富貴花)²⁾ 등으로 불리며, 부귀나 번영,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서 중국의 시가(詩歌), 문학, 회화, 공예, 건축, 복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로 애용되어온 대표적인 꽃이다. 특히 복식의 소재인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며, 조형적 특성이 현대인의 감성에도 적합하여 패션, 주얼리, 문화상품,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의 표현방법 및 구성형태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중국 전통무늬를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란무늬와 관련된 한국의 선행연구로는 이순자³⁾의 牡丹紋樣에 대한 考察, 유혜영⁴⁾의 모란문 연구, 이영란⁵⁾의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 김재임⁶⁾의 한, 중, 일 모란문양의 비교 연구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중국, 한국, 일본의 도자기, 수공예, 직조, 건축 등에 나타난 모란무늬의 사례를 분야마다 조금씩 폭넓게 분석하였다. 또, 중국의 선행연구로는 기경부(祁慶富), 신경섭(申敬燮)⁷⁾의 中韓傳統織繡染色中的牡丹紋樣, 장정(張靜) 외⁸⁾의 牡丹紋樣在民間服飾中的形式美, 왕뢰(王蕾)⁹⁾의 解析民間服飾中的牡丹紋樣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중국 복식에 나타난 모란무늬에 표현된 미의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직조에 의하여 표현된 모란무늬이며, 부금과 자수를 통한 모란무늬는 제외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중국의 당대(唐代)부터 청대(清代)까지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중국의 고서(古書), 출토보고서, 박물관도록, 단행본 등의 문헌들에서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 모란의 역사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 이를 기초로 총 72점의 직물 유물에 나타난 모란무늬를 조사하고 이를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려 분석한 후, 이를 표현방법과 구성형태에 따라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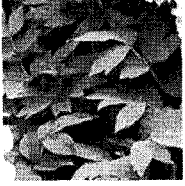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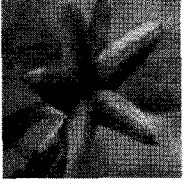
II. 모란의 역사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

모란을 재배한 역사는 오래되어 이미 진(秦), 한(漢) 경에 약용식물로 재배되었으며¹⁰⁾, 남북조(南北朝) 및 수대(隋代) 경에 관상식물로 심고 가꾸는 것이 행해지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당대(唐代)에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이용되었다. 위현(韋絢)이 쓴 『류새객가화록(劉賽客嘉話錄)』에는 북제(北齊) 사람이었던 양자화(楊子華)가 모란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기록이 있으며¹¹⁾, 당대의 시인 류우석(劉禹錫)은 '상모란(賞牡丹)'이라는 시에서 모란을 국색(國色)에 비유하였다¹²⁾. 또한 주방(周昉)의 잠화사녀도(簪花仕女圖)처럼 당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머리에 모란 생화(生花)를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였다¹³⁾. 특히 장식 문화가 발달하고 사실주의의 경향이 유행하면서, 풍성하고 화려한 생김새를 지닌 모란은 당시의 미적 감각과 취향에 가장 적합한 꽃 중의 하나였는데, 이는 모란무늬를 애용하는 배경이 되었다¹⁴⁾.

모란은 낙엽이 지는 관목(灌木)의 일종으로, 꽃은 크고 아름다우며 꽃받침은 5장, 꽃잎은 8장 이상이고 꽃잎의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결각(缺刻)이 있다¹⁵⁾. 잎사귀는 잎자루 양쪽에 작은 잎이 깃털모양을 이루는 복엽(複葉)으로¹⁶⁾, <표 1>¹⁷⁾처럼 잎몸이 2-5부분으로 갈라진다. 이러한 모란이 직물무늬로 표현될 때의 외형적 특징은 꽃잎의 외곽선은 결각이 있는 파상곡선으로 표현되고 꽃잎이 탐스럽게 중첩되며, 잎사귀는 주로 사람의 손을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벌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붙인 형태처럼 세 갈래로 갈라진 형태로 표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네댓 갈래로 갈라진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를 <표 2>처럼 72점 선정하였다¹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에 당대 모란무늬는 3점이었는데, 표현방법 면에서는 <유물 1, 2>처럼 당시 유행하였던 장식적인 보상화처럼 추상적으로 표현한 유형과 <유물 3>처럼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되 꽃잎을 포도송이처럼 쌓아 중첩된 느낌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유형이 있었다. 구성형태

〈표 1〉 모란의 생김새

꽃	잎사귀	열매
		
식물비교도감, 2009, p. 115.	한국식물도감, 2006, p. 396.	식물비교도감, 2009, p. 115.

면에서는 단화(團花)형, 즉 등근형태의 단위무늬나 절지(折枝)형, 즉 짧은 가지에 꽃송이와 잎이 달린 형태의 단위무늬를 좌우 또는 사방으로 대칭시킨 것이 특징이었다.

송대(宋代)에는 모란의 품종과 색상이 다양해지고 재배기술도 발달하여 구양수(歐陽修)의 『낙양모란기(洛陽牡丹記)』, 호원질(胡元質)의 『모란보(牡丹譜)』, 구선(邱璿)의 『모란영육지(牡丹榮辱志)』, 장순(張岫)의 『낙양화보(洛陽花譜)』 등 모란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었다. 남송(南宋)의 장익(張翥)이 쓴 『화경(花經)』에서는 꽃을 구품구명(九品九命)의 품계로 구별하였는데, 모란은 난초, 연꽃과 함께 최고 품격의 꽃이라 하였다¹⁹⁾. 송대에는 남녀 모두 머리에 생화를 꽂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특히 남자들의 관모에 모란과 작약, 장미 등을 장식한 모습을 시인 양만리(楊万里)는 ‘덕수궁경수구호(德壽宮慶壽口號)’라는 시에서 ‘문무백관의 관모 위에 모란과 작약이 만발하였다’라고 표현하였다²⁰⁾. 또, 송대 건축기술을 기록한 『영조법식(營造法式)』에는 모란무늬가 식물무늬를 조각하여 장식하는 방법의 다섯 등급 중에 제일이며²¹⁾,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방법의 아홉 등급 중에는 두 번째라고 하였다²²⁾. 송대에는 산수화나 화조화(花鳥畫) 등의 사생화풍이 유행하면서 모란무늬가 <유물 5, 6, 8-10, 12, 13>처럼 대체로 자연스럽고 사실적이며 수려한 경향으로 변화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송대 모란무늬는 9점이었다. 표현방법 면에서는 9점 중 7점이 실제에 가깝게 충실하게 묘사한 사실적인 유형이었으며, 나머지 2점은 특징을 잡아 도안화한 유형이었다. 특

히 9점의 사실적인 유형 중에서도 <유물 9, 10, 12, 13>처럼 꽃잎을 포도송이처럼 쌓아 풍성함을 강조한 유형이 많았고, <유물 5, 6>처럼 꽃잎의 외곽선을 강한 곡선으로 강조한 유형, <유물 8>처럼 꽃송이와 가지, 잎사귀가 좌우대칭을 이루는 유형도 있었다. 또, 도안화한 유형은 <유물 7>처럼 꽃잎이 모여있는 안쪽과 펼쳐진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단순화한 유형과 <유물 11>처럼 꽃송이 중앙에 연꽃과 같이 종류가 다른 꽃이 마치 꽃술처럼 들어있는 유형이 있었다. 구성형태 면에서는 꽃송이와 잎사귀를 파상(波狀)의 가지로 연결한 관지(串枝)형이 4점, 짧은 가지에 꽃송이와 잎이 달린 절지(折枝)형이 3점, 꽃송이를 곡선의 넝쿨이 휘감아 환형(環形)을 이루는 전지(纏枝)형이 2점으로 비교적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한편, 당시 ‘화협상투(花叶相套)’와 ‘화중유화(花中有花)’라는 독특한 직물무늬 도안기법이 있었던 것이 흥미롭다. ‘화협상투’는 ‘잎과 꽃이 겹치다’라는 의미로²³⁾, 하나의 가지에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꽃이 연결된 형태이다. 그 예로 남송(南宋) 복주(福州) 황승(黃昇) 묘에서 출토된 <유물 10>의 라(羅)직물의 무늬는 하나의 가지에 중심무늬인 큰 모란과 작은 부용이 함께 걸쳐 있으며 잎사귀 사이에는 작은 크기의 매화와 해당(海棠)도 배치하였다. 또, ‘화중유화’는 ‘꽃 중에 꽃이 있다’라는 의미로, 꽃 중앙에 다른 종류의 꽃이 마치 꽃술인 것처럼 들어있는 형태이다²⁴⁾. 그 예로 황승(黃昇) 묘에서 출토된 <유물 11>의 라(羅)직물의 무늬는 모란 중앙 꽃술부분에 작은 연꽃을 배치하였으며, 잎사귀 안에 작은 꽃도 들어있다.

원대(元代)에는 모란의 재배와 유행이 주춤하였는

지, 당시 요수(姚燧)가 쓴 『서모란(序牡丹)』에서는 “겹꽃잎을 보기가 영웅호걸을 찾는 것과 같이 힘들다”라고 표현하였다²⁵⁾.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에도 원대 모란무늬는 5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런데, 원대의 유물 5점 중에 4점이 표현방법 면에서는 특징을 잡아 도안화한 유형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 1점은 추상화된 유형이었다. <유물 17, 18>처럼 비교적 실제와 유사하지만 사실적인 유형에 비하여 덜 풍성하게 단순화된 유형과 <유물 16>처럼 꽃잎의 모여있는 안쪽과 펼쳐진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도안화된 유형, <유물 15>처럼 꽃잎 사이에 간격을 주어 꽃잎을 날날이 표현한 유형이 있었다. 구성형태 면에서는 절지형이 3점이었으며, 전지형과 관지형은 각각 1점씩이었는데, 원대에는 여백이 없이 무늬가 가득한 충전(充填)형 구도가 애용되었던²⁶⁾ 경향을 반영하듯이 모란무늬도 <유물 16, 17, 18, 19>처럼 무늬로 가득 찬 유형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림 1> 모란도
三才圖會, 권6. 草木十二卷

명대(明代) 백과사전으로 사물을 그림과 글로 설명하고 있는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그림 1>²⁷⁾처럼 모란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파상형 곡선의 꽃잎과 세 갈래로 갈라진 잎사귀의 모양이 묘사되어 있어서 모란무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명대에는 직물무늬에 길상적인 의미가 더해지고²⁸⁾, 여러 가지의 꽃이나 인물, 동물 등을 조합하여 우의(寓意)를 지닌 도안이 유행하였다²⁹⁾ 그 예로 <유물 21, 30>은 일년경(一年景) 즉, 일년의 풍경으로, 사계절 중 봄

을 대표하는 꽃인 모란을 여름의 연꽃, 가을의 국화, 겨울의 매화 등과 조합되었다. 또 <유물 23, 24, 29, 35, 40, 42>는 ‘만년 동안 이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만(卍)자 바탕에 모란을 시문하여 부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하였다³⁰⁾.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명대의 것은 24점으로, 당시 직물무늬로서 모란무늬가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현방법 면에서는 실제 모란에 가깝게 충실하게 묘사한 사실적인 유형이 12점이었으며, 특징을 잡아 도안화한 유형이 10점, 추상적으로 표현한 유형이 2점이었다. 먼저, 12점의 사실적인 유형 중에서는 <유물 22, 27, 28, 34>처럼 꽃송이 중앙에 끝이 말려들어간 영지(靈芝)형 꽃잎이 들어있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모두 5점인데, 청대의 1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이 모두 명대의 것이어서 명대에 애용되었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또, <유물 20, 21>처럼 사생풍으로 표현한 유형, <유물 38, 42>처럼 중첩된 꽃송이 중앙에 작은 점들로 꽃술을 강조한 유형, <유물 36, 39>처럼 크고 넓은 꽃잎의 외곽선을 굵게 표현함으로써 탐스러움을 강조한 유형, <유물 25>처럼 꽃잎을 포도송이처럼 쌓아올려 과장되게 표현한 유형, <유물 33>처럼 꽃송이의 정면을 묘사한 유형 등 이전 시대까지는 볼 수 없었던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났다. 10점의 도안화한 유형 중에서는 <유물 24, 29, 31, 32, 37, 40>처럼 꽃잎 사이사이에 간격을 주어 꽃잎을 날날이 표현한 유형이 가장 많았고, <유물 23, 26, 35>처럼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적인 유형에 비하여 덜 풍성하게 단순화된 유형, <유물 43>처럼 꽃잎이 모여있는 안쪽과 펼쳐져 있는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도안화한 유형이 있었다. 구성형태 면에서는 절지형이 13점으로 가장 많았고, 전지형도 8점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관지형이 2점, 단화형은 1점 뿐이었다.

청대(清代) 조맹검(趙孟儉)의 『상리원모란보(桑籬園牡丹譜)』에 따르면, 당시에는 모란의 수광과 품종이 더욱 늘어났으며³¹⁾, 우수구거(愚叟丘據)의 『모란 영욕지(牡丹榮辱志)』에도 모란을 왕(王), 비(妃), 빈(嬪), 세부(世婦)의 품급으로 나누고³²⁾, 각 품급에 따

〈표 2〉 중국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 유물정보

유물 시기	유물명칭	출토지	소장처	표현방법	구성형태
1	당대 花鳥紋錦	新疆 阿斯塔那 北區381號 墓	中國 新疆博物館	추상형-보	단화형-대
2	당대 花樹對鹿紋綾	-	日本 正倉院	추상형-보	단화형-대
3	당대 牡丹花樹對羊紋綾	-	日本 正倉院	사실형-B	절지형-직
4	요대 團窠牡丹對鳳紋綾	內蒙古 耶律羽 豆	中國 絲綢博物館	사실형-I	단화형-대
5	북송 牡丹蓮蓬童子荔枝紋綾	何家皂 1號 墓	中國 湖南省博物館	사실형-H	전지형-C
6	북송 纏枝牡丹紋紗	何家皂 1號 墓	中國 湖南省博物館	사실형-H	전지형-C
7	송대 鸞鳳花紋錦	-	미국 Cleveland Museum of Art	도안형-B	관지형-세
8	송대 嬰嬀牡丹紋綾	-	미국 Cleveland Museum of Art	사실형-I	관지형-가
9	송대 牡丹紋羅	福州 黃昇 墓	中國 福建省博物館	사실형-B	절지형-곡
10	남송 牡丹芙蓉紋羅	福州 黃昇 墓	中國 福建省博物館	사실형-B	절지형-곡
11	남송 牡丹花蕊織連紋羅	福州 黃昇 墓	-	도안형-D	관지형-세
12	남송 花卉紋綾	福州 黃昇 墓	-	사실형-B	절지형-곡
13	남송 花卉紋綾	福州 黃昇 墓	中國 鎮江博物館	사실형-B	관지형-가
14	서하 方勝嬰嬀牡丹蓮花絹	銀川 雙塔	-	도안형-B	전지형-C
15	원대 鳳穿牡丹紋綢	蘇州 張士城之母 趙氏 墓	中國 蘇州博物館	도안형-C	전지형-C
16	원대 串枝牡丹蓮花紋錦	隆化 鴿子洞	-	도안형-B	관지형-가
17	원대 鳳穿花織金錦	-	미국 Cleveland Museum of Art	도안형-A	절지형-직
18	원대 魚鳳紋織金錦	-	미국 Cleveland Museum of Art	도안형-A	절지형-직
19	원대 折枝牡丹花羅	-	-	추상형-기	절지형-곡
20	명대 折枝牡丹菊花紋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A	절지형-곡
21	명대 四季花鳥紋緞	-	中國 絲綢博物館	사실형-A	절지형-직
22	명대 纏枝牡丹勾蓮紋緞	-	개인	사실형-D	전지형-C
23	명대 曲水地牡丹紋緞	-	中國 福建省博物館	도안형-A	전지형-C
24	명대 萬字串枝花紋緞	-	개인	도안형-C	관지형-세
25	명대 折枝牡丹紋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B	절지형-곡
26	명대 妝花織金緞	定陵 孝端皇后 墓	定陵博物院	도안형-A	관지형-세
27	명대 折枝花卉織金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D	절지형-곡
28	명대 折枝花卉織金緞	-	개인	사실형-D	절지형-직
29	명대 万字雜宝折枝花織金緞	-	개인	도안형-C	절지형-곡
30	명대 花卉楞蒲紋妝花緞	-	中國 故宮博物院	추상형-기	단화형-비
31	명대 折枝花卉萬字紋妝花緞	-	中國 故宮博物院	도안형-C	절지형-곡
32	명대 折枝花卉妝花緞	-	개인	도안형-C	절지형-곡
33	명대 纏枝牡丹紋妝花緞	-	개인	사실형-K	전지형-C
34	명대 折枝花卉紋織金綢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D	절지형-곡
35	명대 纏枝花卉紋二色羅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도안형-A	전지형-C
36	명대 纏枝牡丹紋妝花羅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F	전지형-C
37	명대 折枝花卉雜寶紋妝花紗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도안형-C	절지형-직
38	명대 纏枝牡丹寶相花紋錦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사실형-C	전지형-C
39	명대 纏枝牡丹紋錦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F	전지형-C
40	명대 萬字花卉紋錦	-	中國 故宮博物院	도안형-C	전지형-C
41	명대 花卉雜寶紋錦	-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추상형-기	절지형-직
42	명대 曲水地折枝牡丹紋綾	-	中國 絲綢博物館	사실형-C	절지형-직
43	명대 牡丹盤綈紋妝花絲布	-	中國 浙江省博物館	도안형-B	절지형-직
44	청대 萬子富貴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B	절지형-곡
45	청대 牡丹蓮花唐草紋織金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G	관지형-가
46	청대 纏枝牡丹紋織金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G	전지형-C
47	청대 海水花卉鯉魚紋妝花緞	-	中國 故宮博物院	도안형-A	절지형-직
48	청대 花果蝶紋妝花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C	절지형-직
49	청대 竹叶富貴萬年妝花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C	단화형-비
50	청대 金牡丹絨心妝花緞	-	中國 故宮博物院	도안형-D	절지형-직
51	청대 串枝牡丹寶花紋妝花緞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도안형-C	관지형-가

유물	시기	유물명칭	출토지	소장처	표현방법	구성형태
52	청대	折枝牡丹蝴蝶紋妝花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E	절지형-직
53	청대	寸蟒妝花緞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도안형-C	절지형-직
54	청대	纏枝四季三多紋錦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J	전지형-C
55	청대	福壽三多紋錦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E	절지형-직
56	청대	鳳凰大花紋錦	-	中國 故宮博物院	도안형-D	관지형-가
57	청대	牡丹蓮花紋錦	-	개인	사실형-F	절지형-직
58	청대	鳳穿牡丹紋錦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사실형-E	절지형-곡
59	청대	八寶長圓壽字織金錦	-	中國 故宮博物院	도안형-C	단화형-비
60	청대	鳳穿牡丹紋織金錦	-	-	사실형-B	절지형-곡
61	청대	纏枝牡丹夔龍紋織錦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사실형-B	전지형-C
62	청대	雙鳳五福八吉祥織錦	-	-	사실형-I	절지형-곡
63	청대	牡丹花頭天華錦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도안형-D	단화형-대
64	청대	蝴蝶串枝牡丹芙蓉妝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사실형-B	관지형-세
65	청대	纏枝牡丹紋芙蓉妝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사실형-E	전지형-C
66	청대	折枝牡丹菊花紋芙蓉妝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사실형-B	절지형-직
67	청대	串枝牡丹富貴福壽芙蓉妝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E	관지형-세
68	청대	串枝牡丹紋漳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C	관지형-가
69	청대	數彩富貴如意漳緞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C	단화형-비
70	청대	鳳穿牡丹紋漳緞	-	中國 清華大學 美術學院	사실형-B	전지형-S
71	청대	牡丹團壽盤長紋漳絨	-	中國 故宮博物院	도안형-C	절지형-직
72	청대	錫蓮回紋牡丹云龍漳絨	-	中國 故宮博物院	사실형-D	전지형-C

라 매우 다양한 품종과 색상, 생김새의 모란이 묘사되어 있다. 청대의 무늬는 한족(漢族)과 만주족(滿洲族), 서양문화가 융합되어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졌는데³³⁾, 특히 '문필유의(紋必有意), 의필길상(意必吉祥)³⁴⁾ 즉, '무늬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의미는 반드시 길상을 나타낸다'라고 할 정도로 길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성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 중 청대 모란무늬는 29점이었다. 표현방법 면에서는 실제에 가깝게 충실히 묘사한 사실적인 유형이 21점으로 가장 많았고, 특징을 잡아 도안화된 유형이 8점이었으며, 추상화된 유형은 없었다. 사실적인 유형 중에서도 <유물 44, 60, 61, 64, 67, 70>과 같이 꽃잎을 포도송이처럼 쌓아 풍성함을 강조한 유형이 송대처럼 가장 많았다. 또, <유물 52, 55, 58, 65, 66>처럼 꽃송이가 U자형을 이루는 유형과 <유물 45, 46>처럼 크고 넓은 꽃잎 속의 맥을 강조하여 가는 선으로 표현한 유형은 청대의 유물에서만 나타났다. 그밖에도 <유물 48, 49, 68, 69>처럼 꽃송이 중앙에 작은 점들로 꽃술을 강조하여 표현한 유형, <유물 72>처럼 꽃송이 중앙부분에 영지형 꽃잎이 들어 있는 유형, <유물 57>처럼 꽃잎의 외곽선을

굵게 표현함으로써 탐스러운 강조한 유형, <유물 62>처럼 꽃송이와 가지, 잎사귀가 좌우대칭인 유형, <유물 54>처럼 꽃잎이 모여있는 안쪽과 펼쳐진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유형 등 명대보다 더 다양한 유형들이 이용되었다. 도안화된 8점 중에는 <유물 51, 53, 59, 71>처럼 꽃잎 사이사이에 간격을 주어 꽃잎을 날날이 표현한 유형과 <유물 50, 56, 63>처럼 정면을 표현한 유형이 많은 편이었으며, <유물 47>처럼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나 사실적인 유형에 비하여 덜 풍성하게 단순화된 유형도 있었다. 구성형태 면에서는 절지형이 13점으로 가장 많았고, 관지형과 전지형이 각각 6점씩이었으며, 단화형은 4점이었다.

Ⅲ. 모란무늬의 유형별 분류

꽃무늬나 모란무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포명신(包銘新)과 조봉(趙丰)이 꽃무늬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절지화(折枝花), 전지화(纏枝花), 관지화(串枝花), 단화(團花)로 분류한 예가 있으며³⁵⁾, 한국에서는 김재일이 조각,

도자기, 직물 등에 나타난 모란무늬를 조형성에 따라 사실형(寫實形), 추상형(抽象形), 도상형[樣式形]으로, 구성에 따라 닝쿨형, 가지형, 단위형(團位形)으로, 구도에 따라 충전형(充填形), 산점형(散點形), 회화형(繪畫形)으로 분류하였다³⁶⁾.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중국 직물에 나타난 72점의 모란무늬를 표현방법에 따라 사실형, 도안형, 추상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성형태에 따라 절지형(折枝形), 전지형(纏枝形), 관지형(串枝形), 단화형(團花形)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표현방법에 따른 분류

1) 사실형

사실형 모란무늬는 실제 모란과 최대한 유사하게 충실하게 묘사한 유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사실형은 42점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였다. 당대의 유물 3점 중에는 1점이 사실형이었는데, 송대의 유물 9점 중에는 7점이 사실형으로 이 때부터 사실형 모란무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명대에는 유물 24점 중에는 12점이, 청대에는 유물 29점 중에 21점이 사실형이며, 명대와 청대에는 특히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다양화된 사실형의 모란무늬는 묘사의 정도, 꽃잎이 중첩된 정도, 꽃잎의 모양, 꽃송이의 형태, 꽃술의 형태, 잎사귀의 모양 등에 따라 <표 3>처럼 A형부터 K형까지의 11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A형은 모란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꽃잎이 중첩된 정도도 실제와 유사하게 풍성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잎사귀도 실제에 가깝게 충실하게 묘사하여, 마치 회화처럼 사생풍의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이 특징이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A형은 2점(4.8%)이며, 모두 명대의 유물이다.

B형은 모란을 세밀하게 묘사되 꽃잎을 마치 포도송이처럼 쌓아 풍성함을 강조하여 다소 과장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비교적 실제에 가깝게 충실히 묘사된 경우와 세 갈래로 나누어진 형태인 경우, 곡선이 강조된 보상화풍인 경우 등 유

물에 따라 다양하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B형은 모두 12점(28.6%)으로 가장 많았는데, 당대 유물에 1점 나타나기 시작하여 송대, 명대, 청대 등 대부분의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송대와 청대에 각각 4점과 6점으로 당시 애용되었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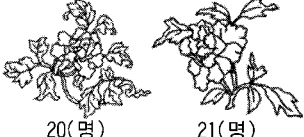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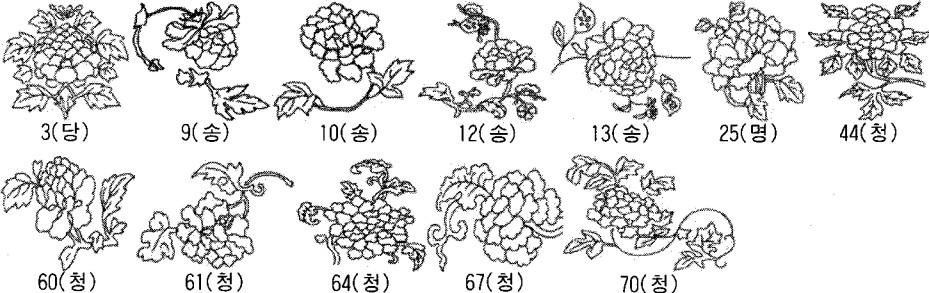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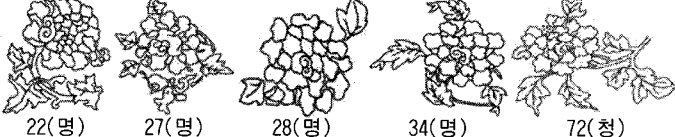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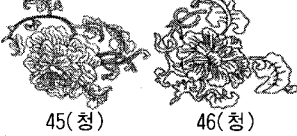

C형은 꽃잎이 중첩된 정도가 실제와 유사한 느낌으로 풍성하며, 중첩된 꽃송이 중앙에 미세한 몇 개의 점들로 이루어진 꽃술을 표현하여 강조함으로써 장식적이면서도 양식화된 느낌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꽃송이의 분위기와 어울리게 비교적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C형은 모두 6점(14.3%)인데, 2점은 명대의 것이고 4점은 청대의 것이다.

D형은 꽃잎이 여러 겹 중첩되어 풍성한 느낌을 주며, 꽃 중앙부분에 끝이 말려들어간 영지형 꽃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꽃송이의 분위기와 어울리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D형은 5점(11.9%)인데, 4점은 명대의 것이고 1점은 청대의 것으로 주로 명대에 애용되었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부귀와 번영, 아름다움을 뜻하는 모란꽃 중앙에 먹으면 늙지 않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 장수를 상징하는 영지형 꽃잎을 넣었는데, 이는 당시 무늬에 길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성행하였던 시대적 기호를 반영한 유형이어서 흥미롭다.

E형은 꽃잎이 모인 꽃송이가 U자형을 이루는 유형으로, 양식화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U자 중앙부분에는 꽃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잎사귀는 유물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충실하게 묘사되어 사실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E형은 5점(11.9%)인데, 모두 청대의 유물이어서 당시 유행하였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F형은 크고 넓은 꽃잎 하나하나의 외곽선을 단순한 곡선으로 굽게 표현함으로써 탐스럽고 활짝 핀 형태를 강조한 유형이다. 잎사귀는 실제에 가깝게 잎맥까지 충실하게 묘사한 것과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형태를 단순하게 도안화한 것 등 유물에 따라 조금

<표 3> 표현방법에 따른 분류: 사실형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A	 <p>20(명) 21(명)</p>	2
B	 <p>3(당) 9(송) 10(송) 12(송) 13(송) 25(명) 44(청)</p> <p>60(청) 61(청) 64(청) 67(청) 70(청)</p>	12
C	 <p>38(명) 42(명) 48(청) 49(청) 68(청) 69(청)</p>	6
D	 <p>22(명) 27(명) 28(명) 34(명) 72(청)</p>	5
E	 <p>52(청) 55(청) 58(청) 65(청) 66(청)</p>	5
F	 <p>36(명) 39(명) 57(청)</p>	3
G	 <p>45(청) 46(청)</p>	2
H	 <p>5(송) 6(송)</p>	2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I	<p>4(요) 8(송) 62(청)</p>	3
J	<p>54(청)</p>	1
K	<p>33(명)</p>	1
합계	<p>42</p>	42

씩 달랐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F형은 3점(7.1%)인데, 명대 2점과 청대 1점이다.

G형은 크고 넓은 꽃잎 속의 맥을 강조하여 가는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꽃잎 표면에 주름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보상화풍으로 말려 감기는 듯한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G형은 2점(4.8%)인데, 모두 청대의 유물이다.

H형은 꽃잎의 외곽선을 구불구불하게 강한 곡선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일반적인 형태와 보상화풍의 형태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H형은 2점(4.8%)인데, 모두 송대의 유물이다.

I형은 모란무늬를 구성하는 꽃송이와 가지, 잎사귀 전체가 좌우대칭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I형은 3점(7.1%)인데, 요대와 송대, 청대 각각 1점씩이다.

J형은 꽃잎이 중앙으로 동그랗게 모여있는 안쪽과 사방으로 뻗어있는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비교적 사실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J형은 1점(2.4%)인데, 명대의 유물이다.

K형은 대부분의 다른 유형들이 꽃송이의 측면을 묘사한 것에 비하여 꽃송이의 정면을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꽃잎 외곽선의 각각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강조한 꽃잎이 세 층으로 구성되어 중첩감이

〈표 4〉 표현방법에 따른 분류: 도안형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A		6
B		4
C		11
D		4
합계		25

강조되고 꽃송이의 중앙은 색상을 달리하고 원형으로 강조하였다. 잎사귀는 원형의 너글을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형태와 세 갈래로 갈라진 것, 곡선이 강조된 보상화풍 등을 섞어 배치하였다. 42점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 K형은 1점(2.4%)인데, 명대의 유물이다.






2) 도안형

도안형 모란무늬는 모란의 외형적 특징을 실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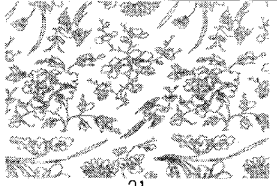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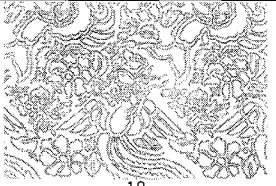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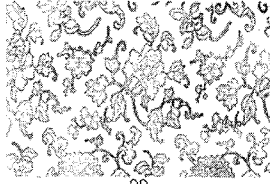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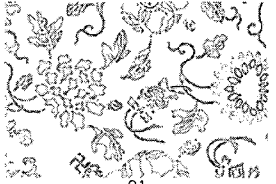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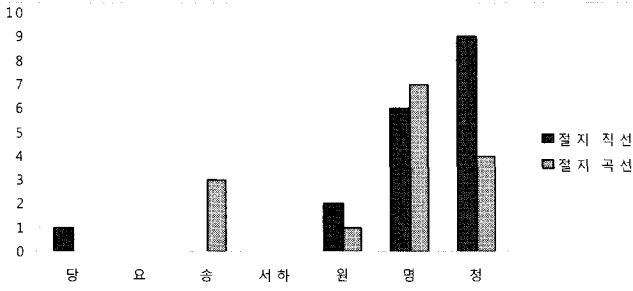
다 간략하게 도안화한 유형으로, 파상곡선을 이루는 꽃잎의 결각, 꽃잎의 수, 잎사귀 모양 등을 단순화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도안형은 25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였다. 도안형 모란무늬는 도안화된 정도, 꽃잎이 중첩된 정도, 꽃잎의 모양, 꽃잎의 수 등에 따라 〈표 4〉처럼 A, B, C, D형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A형은 10여개의 큰 꽃

<표 5> 표현방법에 따른 분류: 추상형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보상화형	 1(당)  2(당)	2
기하형	 19(원)  30(명)  41(명)	3
합계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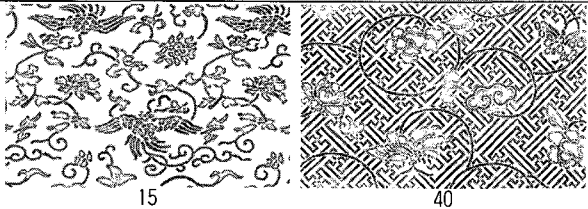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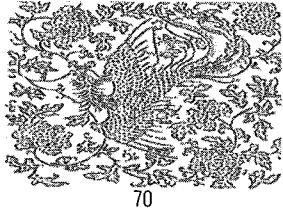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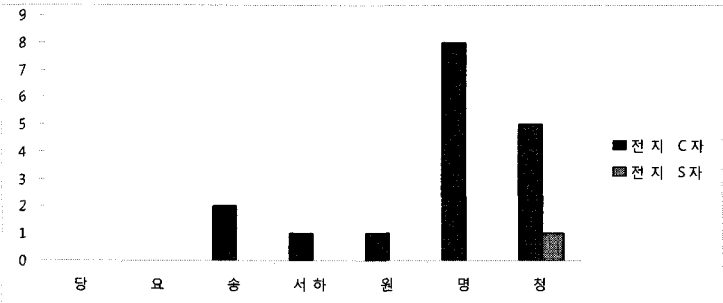
<표 6>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절지형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번호	유물 점수
직선형	 21  18	3(당), 17(원), 18(원), 21(명), 28(명), 37(명), 41(명), 42(명), 43(명), 47(명), 48(명), 50(명), 52(명), 53(명), 55(명), 57(명), 66(명), 71(명)	18
곡선형	 20  31	9(송), 10(송), 12(송), 19(원), 20(명), 25(명), 27(명), 29(명), 31(명), 32(명), 34(명), 44(명), 58(명), 60(명), 62(명)	15
합계			33

잎이 중첩된 정도가 실제와 유사하지만 사실형에 비하여 조금 덜 풍성하게 단순화되었다. 잎사귀도 세 갈래 또는 네댓 갈래로 갈라지는 외곽선과 잎맥의 특징만을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25점의 도안형 모란무늬 중 A형은 6점(24%)인데, 2점은 원대, 3점은 명대, 1점은 청대의 것이다.

B형은 크고 단순화된 6-8개의 꽃잎으로 모란을 표현하였는데, 꽃잎이 모여있는 중심부분과 펼쳐진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세 갈래 또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외곽선과 잎맥을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25점의 도안형 모란무늬 중 B형은 4점(16%)으로, 서하, 송대, 원대, 명대

〈표 7〉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전지형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번호	유물 점수
C자형		5(송), 6(송), 14(서하), 15(원), 22(명), 23(명), 33(명), 35(명), 36(명), 38(명), 39(명), 40(명), 46(청), 54(청), 61(청), 65(청), 72(청)	17
S자형		70(청)	1
합계			18

의 유물이 각각 1점씩이다.

C형은 10-20여개의 작은 꽃잎 사이사이에 간격을 주어 꽃잎을 날날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유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갈래로 갈라진 외곽선과 잎맥을 특징으로 매우 단순화된 경우가 많았다. 25점의 도안형 모란무늬 중 C형은 11점(44%)으로, 도안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원대 유물에 1점이 있으며, 이후 오랫동안 애용되어 6점은 명대, 4점은 청대의 것이다.

D형은 다른 유형들이 측면형인 것과는 달리 꽃송이의 정면을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꽃잎의 외곽선을 파상곡선으로 표현하고, 작은 꽃잎을 중첩시켜 풍성한 느낌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 25점의 도안형 모란무늬 중 D형은 4점(16%)인데, 1점은 송대의 것이고 3점은 청대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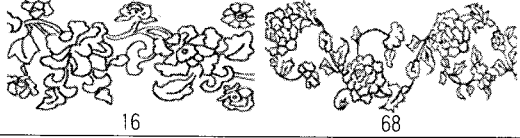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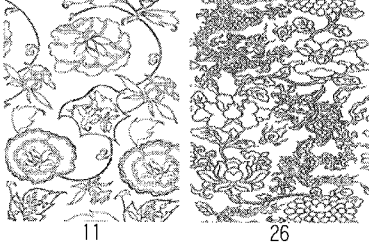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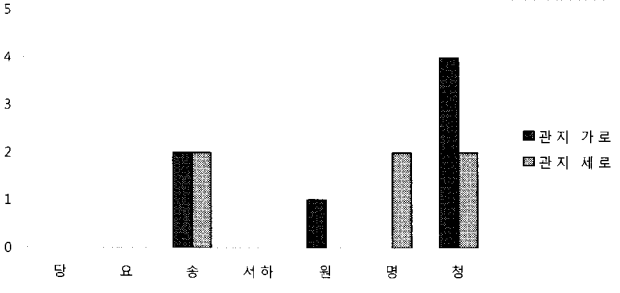
3) 추상형

추상형은 모란무늬를 매우 단순화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실제 모란의 생김새와는 차이가 많은 형태이다. 그러나 꽃잎 외곽선의 결각은 약하게나마 표현하고 잎사귀는 대체로 세 갈래로 갈라진 형태로 표현하여 모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나타내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지닌 추상형 모란무늬는 72점의 유물 중 5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추상형 모란무늬는 〈표 5〉처럼 보상화형과 기하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상화형은 당대의 〈유물 1, 2〉처럼 모란무늬 최소한의 두 가지 특징은 가지고 있으나 당시에 유행하였던 상상의 꽃인 보상화의 영향을 받아 장식적인 곡선의 넝쿨과 팔메트(palmette)형의 잎사귀와 함께 조합되어 추상화된 유형이다.

기하형은 꽃송이의 모양을 원형, 마름모형, 사각형

<표 8>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관지형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번호	유물 점수
가로형		8(송), 13(송), 16(원), 45(청), 51(청), 56(청), 68(청)	7
세로형		7(송), 11(송), 24(명), 26(명), 64(청), 67(청)	6
합계			13

과 같은 기하도형에 가깝게 매우 단순화한 유형이다. 원대의 <유물 19>는 꽃잎의 결각이 매우 약하고 꽃송이의 모양도 원형으로 매우 단순화하였으며, 잎사귀도 세 갈래의 극히 단순한 형태로 모란의 최소한의 특징만을 표현하였다. 명대의 <유물 30>은 꽃잎의 외곽선이 둔한 곡선으로 표현되고, 꽃송이의 모양도 마름모형으로 매우 단순화하였으며 잎사귀도 세 갈래의 극히 단순한 형태이지만, 여름의 연꽃, 가을의 국화, 겨울의 동백과 함께 표현되어 봄을 의미하는 모란으로서 사계화의 일종으로 사용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또, 명대의 <유물 41>은 꽃송이의 모양이 사각형으로 매우 단순화, 추상화되어 언뜻 보기에 마치 짐승이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만 꽃잎의 결각과 세 갈래의 잎사귀가 모란의 최소한의 특징을 보여준다.

2.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1) 절지형(折枝形)

절지형 모란무늬는 짧은 가지에 꽃송이와 잎사귀가 달린 형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절지형은 33점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여 구성형태에 따른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절지형은 <표 6>처럼 매우 짧은 가지를 표현한 직선형과 조금 긴 가지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표현한 곡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33점의 절지형 중 직선형은 18점, 곡선형은 15점이다. 한편, 33점의 절지형 모란무늬의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당대 1점, 송대와 원대에 각각 3점씩이며, 모란무늬가 애용되었던 명대와 청대에는 각각 13점씩으로 이전 시기보다 유물 수가 많은 만큼 절지형의 유물도 많은 편이다.

<표 9>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단화형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번호	유물 점수																								
대칭형		1(당), 2(당), 4(요), 63(청)	4																								
비대칭형		30(명), 49(청), 59(청), 69(청)	4																								
합계	<table border="1"> <caption>단화형 유물 분포</caption> <thead> <tr> <th>시대</th> <th>단화 대칭</th> <th>단화 비대칭</th> </tr> </thead> <tbody> <tr> <td>당</td> <td>2</td> <td>0</td> </tr> <tr> <td>요</td> <td>1</td> <td>0</td> </tr> <tr> <td>송</td> <td>0</td> <td>0</td> </tr> <tr> <td>서하</td> <td>0</td> <td>0</td> </tr> <tr> <td>원</td> <td>0</td> <td>0</td> </tr> <tr> <td>명</td> <td>0</td> <td>1</td> </tr> <tr> <td>청</td> <td>1</td> <td>3</td> </tr> </tbody> </table>	시대	단화 대칭	단화 비대칭	당	2	0	요	1	0	송	0	0	서하	0	0	원	0	0	명	0	1	청	1	3		8
시대	단화 대칭	단화 비대칭																									
당	2	0																									
요	1	0																									
송	0	0																									
서하	0	0																									
원	0	0																									
명	0	1																									
청	1	3																									

2) 전지형(纏枝形)

전지형 모란무늬는 곡선의 넝쿨이 꽃송이를 휘감아 환형(環形)을 이루는 형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전지형은 18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였다. 전지형은 <표 7>처럼 넝쿨의 모양에 따라 C자형과 S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점의 전지형 중 17점이 C자형이었으며 S자형은 1점뿐이었다. 한편, 18점의 전지형 모란무늬의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송대 2점, 서하와 원대 각각 1점씩으로 일부 유물에서 나타나며, 모란무늬가 애용되었던 명대와 청대에는 각각 8점과 6점으로 이전 시기보다 유물 수가 많은 만큼 전지형의 유물도 많은 편이다.

3) 관지형(串枝形)

관지형 모란무늬는 꽃송이와 잎사귀를 파상(波狀)의 줄기로 연결한 형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관지형은 13점으로, 18.1%를 차지하였다.

관지형은 <표 8>처럼 중심줄기의 방향이 가로인 경우와 세로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3점의 관지형 중 가로형이 7점이며 세로형은 6점이다. 한편, 13점의 관지형 모란무늬의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송대 4점, 원대 1점, 명대 2점이 나타났으며, 모란무늬가 애용되었던 청대에는 6점으로 유물 수가 많은 만큼 관지형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4) 단화형(團花形)

단화형 모란무늬는 모란 꽃송이를 다른 종류의 무늬와 함께 원형의 단위무늬로 표현한 형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72점의 유물 중 단화형은 8점으로, 11.1%를 차지하였다. 단화형은 <표 9>처럼 단위무늬의 좌우가 같은 대칭형과 다른 비대칭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8점의 단화형 중 대칭형과 비대칭형이 각각 4점씩이다. 한편, 8점의 단화형 모란무늬의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당대 2점, 요대와 명대 각 1점,

청대는 4점이었으나 송대와 원대 유물 중에는 1점도 없었다. 또, 당대의 단화형은 2점이 모두 대칭형인 것에 비하여 청대의 단화형 4점은 모두 비대칭형인 것이 특징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 모란의 역사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의 특징을 고찰하고, 당대부터 청대까지 72점의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를 표현방법과 구성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72점의 모란무늬를 표현방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사실형이 42점(5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안형도 25점(34.7%)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 추상형은 5점(7.0%)이다. 실제 모란을 충실하게 묘사한 사실형의 모란무늬는 송대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명대와 청대에 이르러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었는데, 묘사의 정도, 꽃잎이 중첩된 정도, 꽃잎의 모양, 꽃송이의 형태, 꽃술의 형태, 잎사귀의 모양 등에 따라 11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11가지의 사실형들을 분석해보면, 꽃잎을 포도송이처럼 쌓아 풍성함을 강조한 유형(사실B형)이 42점의 사실형 중 12점으로 가장 많다. 이 유형은 당대, 송대, 명대, 청대 등 대부분의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송대와 청대에 애용되었다. 또, 같은 사실형이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 선호하였던 유형이 달라서 명대에는 부귀,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모란꽃 중앙에 장수를 의미하는 영지형 꽃잎을 넣음으로써 상징성을 한 가지 더 추가한 유형(사실D형)이 애용되어 길상의 의미를 중요시하였던 시대적 기호를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꽃송이가 U자형인 유형(사실E형)과 꽃잎 속의 맥을 강조한 유형(사실G형)은 청대의 유물에만 나타나 청대의 장식적이고 양식화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모란의 외형적 특징을 도안화한 모란무늬는 도안화된 정도, 꽃잎이 중첩된 정도, 꽃잎의 모양, 꽃잎의 수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송대의 유물에서 꽃잎이 모여있는 안쪽과 펼쳐진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단순화한 유형(도안B형)과 꽃잎이

중첩된 느낌을 꽃송이 정면을 표현함으로써 강조한 유형(도안D형) 등이 보이기 시작하여, 원대에는 사실형보다 중첩감을 단순화한 유형(도안A형)과 꽃잎 사이사이에 간격을 주어 꽃잎을 날날이 표현한 유형(도안C형)도 등장하였다. 특히 꽃잎을 날날이 표현한 유형(도안C형)은 25점의 도안형 중 11점으로 가장 많았는데, 원대부터 명대, 청대에까지 오랫동안 애용되었다. 한편, 도안형은 사실형처럼 시대별로 선호하였던 유형이나 특징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송대와 청대의 유물에서는 사실형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하여, 원대에는 모란무늬의 유물 수가 5점으로 많지 않지만 1점을 제외한 4점이 모두 도안형인 것이 특징이며, 명대는 도안형과 사실형의 비중이 유사하였다.

모란의 최소한의 특징만을 표현한 추상형의 모란무늬는 사실형이나 도안형에 비하여 매우 적었는데, 당대의 유물에서 장식적인 곡선의 넝쿨과 팔메트형의 잎사귀를 함께 표현한 보상화형이 2점 있고, 원대와 명대의 유물에서 꽃송이의 모양을 원형, 마름모형, 사각형의 기하도형에 가깝게 매우 단순화한 유형이 3점 있다.

모란무늬를 구성형태에 따라 분류해보면, 절지형이 33점(4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지형도 18점(25.0%)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관지형은 13점(18.1%), 단화형은 8점(11.1%)이다. 절지형은 가지의 형태에 따라 직선형과 곡선형으로, 전지형은 넝쿨의 모양에 따라 C자형과 S자형으로, 관지형은 중심줄기의 방향에 따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단화형은 단위무늬의 좌우대칭 여부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구성형태 면에서는 시대에 따른 유형이나 특징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1) 諸稿輟次 (1958). 大漢和辭典 卷七. 東京: 大修全官書店, p. 627.
'本草牡丹 釋名 鼠姑, 鹿韭, 百兩金, 木芍藥, 花王'
- 2) 周敦頤, 愛蓮說. '牡丹花之富貴者也'
- 3) 이순자 (1985). 牡丹紋樣에 대한 考察. 服飾, 9, pp. 89-106.

- 4) 유혜영 (1987). 모란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영란 (1992). 모란문양에 대한 고찰-조선조 공예품 중심으로. 한국조형교육, 8, pp. 87-109.
- 6) 김재임 (1999). 한, 중, 일 모란문양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祁慶富, 申敬燮 (1997). 中韓傳統織繡染色中的牡丹紋樣. 民族藝術, 2月號.
http://epub.cnki.net/grid2008/detail.aspx?filename=MZY5199702014&dbname=CJFD1997
- 8) 張靜, 張竟琮, 梁惠娥 (2007). 牡丹紋樣在民間服飾中的形式美. 紡織學報, 2月號.
http://epub.cnki.net/grid2008/detail.aspx?filename=FZXB200702030&dbname=cjfd2007
- 9) 王蕾 (2008). 解析民間服飾中的牡丹紋樣. 中國科技信息, 15期.
http://epub.cnki.net/grid2008/detail.aspx?filename=XJK200815095&dbname=CJFD2008
- 10) 神農本草經. 草 中品.
- 11) 韋詢. 劉賽客嘉話錄.
- 12) 劉禹錫. 賞牡丹. '唯有牡丹真國色'
- 13) 包銘新, 李曉君, 趙敏 (2004). 中國服飾這棵樹.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70.
- 14) 田自秉, 吳淑生, 田青 (2003). 中國紋樣史.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pp. 220-229.
- 15) 이용로 (2006). 韓國植物圖鑑. 서울: 教學社, p. 396.
- 16) 諸稿輟次. 앞의 책, p. 627.
- 17) 김옥임, 남정칠 (2009). 식물비교도감. 서울: 현암사, p. 115.
- 이영로 (2006). 한국식물도감. 서울: 교학사, p. 396.
- 18) 본 연구에서는 결각이 있는 꽃잎의 형태와 중첩감, 3-5갈래로 표현되는 잎사귀 등의 외형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 식물에 나타난 모란무늬를 최대한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요(遼)나 서하(西夏) 등 일부 시기의 유물은 극히 적어 제한점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 19) 張翊. 花經. '一品九命 蘭牡丹葛梅餘紫風流'
- 20) 楊万里. 德壽宮慶壽口号. '牡丹芍藥薔薇朵 都向千官帽上開'
- 21) 營造法式 卷12. 雕木作制度. '雕插寫生華之制有五品 一曰牡丹華'
- 22) 營造法式 卷14. 彩畫作制度. '華文有九品 二曰宝相華牡丹華之類同'
- 23) 黃文弼, 陳崇器 (2002). 鳥語花香的南宋紗羅. 科學無限, 7月號.
http://www.kepu.net.cn/gb/ezine/62_0729.html
- 24) 田自秉, 吳淑生, 田青. 앞의 책, p. 299.
- 25) 姚燧. 序牡丹. '千叶獨難遇 亦優千人爲英 萬人爲杰 優世紀不恒有者'
- 26) 徐百佳 (2004). 粗獷豪放、錯彩樓金的元代染織紋樣. 蘇州大學學報, 6月號.
http://epub.cnki.net/grid2008/detail.aspx?filename=5ILK200403006&dbname=CJFD2004
- 27) 三才圖會, 卷6 草木十二卷.
- 28) 卞宗舜, 周旭, 史玉琢 (1999). 中國工藝美術史. 北京: 中國輕工業出版社, p. 417.
- 29) 韓澄 (2006). 明清時期織繡品吉祥紋樣考据. 飾, 9月號.
http://epub.cnki.net/grid2008/detail.aspx?filename=SHIZ200603012&dbname=cjfd2006
- 30) 班昆 (2002). 中國傳統圖案大觀, 3.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p. 5.
- 31) 趙孟頫. 桑籬園牡丹譜. '牡丹株殆以數千 种殆以數百'
- 32) 愚叟丘璩. 牡丹榮辱志. '欲姚之黃爲王 魏之紅爲妃 无所忝冒 何哉 位即尊矣, 必授之以九嬪; 九嬪佐矣, 必隶之以世婦.'
- 33) 趙丰 (2005). 絲綢藝術史. 北京: 文物出版社, p. 541.
- 34) 張道一 (2004). 中國的吉祥文化. 江蘇工藝美術, 3期.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ZJGY200402001.htm
- 35) 包銘新, 趙丰 (1997). 中國織繡鑑賞與收藏.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p. 54-55.
- 趙丰 (2005). 中國絲綢通史. 蘇州: 蘇州大學出版社, pp. 458-463.
- 36) 김재임. 앞의 책, pp. 95-101.